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호소에 대한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 분석 연구

백 선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특히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욱 길어짐에 따라 여성은 인생의 3분의 1의 기간을 중년기 이후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 중년기는 연령적으로 40-60세 사이로 정의되고 있으며 생식 주기상으로는 갱년기에 해당된다(이경혜 등, 1998).

갱년기(climacterium)는 그리스어의 “사다리의 단계(rung of the ladder)”란 뜻에서 유래되었다. 갱년기는 여성생활에 있어 생산력이 감소되고 월경주기가 불규칙하게 되어 결국 월경이 멈추게 되는 단계를 말하며 또한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배란 중지 이후 시기를 말한다(이영숙외 10인, 1998). 이러한 갱년기의 생리적 변화를 맞이한 부인들은 마치 사춘기 시절에 신체의 급격한 성장과 초경을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큰 변화와 위기를 맞이 하였던 것과 같은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갱년기는 여성의 생의 주기 중에서 가장 현저하고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고도 하며, 때로는 “중년의 위기(crisis of middle age)”라고 까지 표현된다(Steiner, 1973). 중년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최명성, 1977). 중년여성의 반수 정도가 두통, 현기증, 심계항진, 관절의 통증, 열감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갱년기 증상은 과거에는 폐경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서 폐경기 증상이라고 했으나, 최근에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갱년기증상 중에서 폐경과 관련있는 증상은 열감과 발한 뿐이며 다른 요인으로서는 개인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Craig, G, J. 1986). 그러므로 갱년기 증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갱년기증상을 호소하는 중년여성들을 관리할 때 사회,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여러가지 발달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길홍, 1978 ; 조미영, 1980 ; 지성애, 1983 ; 유민경, 1986 ; Novak, 1975). 그중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보면 도시와 농촌에서의 중년여성의 생활환경이나 직업, 사회활동, 여가활동 등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것은 갱년기 증상 경험에도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려된다. 따라서 저자는 도시와 농촌에서의 중년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갱년기 증상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중년여성의 건강관리 및 간호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 동해대학 간호과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증상의 호소 정도를 분석 및 비교하여 중년여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도시와 농촌의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 호소 정도와 관계변수를 확인한다.
- 2) 도시와 농촌의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 호소 정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중년여성 :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여성으로서 일반적으로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속한 여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40세부터 59세까지의 여성을 말한다.
- 2) 갱년기 증상 : 여성이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이행됨을 나타내주는 폐경전후에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40세부터 59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에 의해 고안된 갱년기 증상을 포함한 갱년기 증상 척도에 의해서 점수를 측정하였다.
- 3) 도시 : 본 연구에서는 인구가 5만인 이상인 시와 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
- 4) 농촌 : 본 연구에서는 인구가 5만인 이하인 군이하를 말한다.

II. 문헌 고찰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호소가 도시와 농촌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중년여성의 발달특성과 갱년기 증상을 고찰하였다.

1. 중년여성의 발달특성

1) 중년기의 구분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바뀌어가는 전환점이며(서봉연역, 1989), 청소년기와 성인초기 등의 발달단계를 거처온 시기이며 또한 노년기로의 준비단계이다. 윤진(1985)은 중년기를 신체적 나이보다는 인생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35세에서부터 55세까지를 중년기로 보는데 반해, 전문직 종사자들은 40세에서부터 65세까지를 중년기로 보았다. Havighust(1972)는 신체적 성숙과 문화적 영향

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인생주기에 따라 6단계의 발달과업 이론을 제시함에 있어 30-60세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 Stevenson(1977)은 중년기를 30-70세로 규정하고 중년의 중심이 되는 전기를 중년 I기(30-50세)로, 새로운 중년시기인 후기를 중년 II기(50-70세)로 구분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중년여성의 나이를 35-60세(서연옥, 1994a; 이원희, 1992), 40-60세(김태주, 1987; 김희경, 1990; 서연옥, 1994b; 이경혜, 1992; 조옥순, 1986; 최양자, 1989; Uphold & Susman, 1981)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였으며, Duvall(1977)은 막내 자녀의 결혼 이후부터를 중년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년기의 기간을 적게는 20년, 길게는 40년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중년기의 갱년기 증상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함을 제시한다. 박재순(1995)은 중년기를 중년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중년후기의 여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것은 중년여성을 사정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2) 신체, 생리적 발달특성

Larocco(1980)는 이 시기에 여성들은 신체적인 노화현상과 더불어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역할변화, 노부모와 가까운 친척 및 친구의 질병과 죽음에 따른 사회 영역에서의 변화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수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신체적 발달변화는 일부 세포의 증식과 퇴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생의 전반을 거쳐 일어나는데 40세 이후가 되면 그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신체의 변화를 노화라고 하는데(Bee & Mitchell, 1980) 일반적으로 노화현상은 시력, 청력, 미각 등의 감각기관의 감퇴와 거친피부, 주름형성, 흰머리, 유방의 위축, 치아의 변화, 기력의 감퇴에 따른 운동능력의 감소, 기억력 등의 인지능력의 감소 등의 현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여성은 신체적 노화의 일부로서 생식기능이 감퇴하고 폐경이 된다. 폐경이란 실질적인 월경의 종료를 나타내지만 그 시점에 대한 규정은 어렵다. 따라서 폐경에 관련된 용어 사용에도 적지않은 혼돈이 있다(박재순, 1995).

뇌하수체를 중심으로 한 내분비계와 간뇌를 중추로 한 자율신경계는 시상하부와 관련성이 깊은 까닭에 내분비계 평형실조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정신,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자극에 의하여 혼란이 오고,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으로 자율신경 실조가 나타난다. 자율신경계의 실조증은 혈관운동계의 불안전성을 가져와서 혈관의 수

측과 이완의 장애로 인하여 열감, 발한, 도한, 무딘감각, 얼얼하게 쭈심, 수족냉증, 심계항진,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이경혜 외 9인, 1998).

3) 심리, 사회적 발달특성

중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 특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Erikson(1963)은 중년기에는 생산성과 자기침체의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고, Jung(1993)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조차도 내면적 불안과 우울이 관찰되었고 정신세계의 내면화를 통해 생의 의미를 음미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Frankle(1963)은 중년기에 실존적 공허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년기 여성은 신체적인 불편감, 불쾌한 기분, 어머니로서의 역할상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 등의 부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자녀에게 항상 관심을 둘 필요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느정도 안정되며 가사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새로운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중년기는 안정되고 각자의 철학이 재점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과거를 후회하기 보다는 개인적 발달을 복돋우므로써 바람직한 삶을 이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이강윤, 1986).

더불어 역할 변화에 따른 재적응과 신체, 생리적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며 자녀들을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독립시켜야 하는 시기이다(Janet, 1973). 지금까지 자녀 양육과 배우자의 내조에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온 갱년기 여성들은 자녀의 독립으로 애정의 대상을 잃게되어 상실감, 공허감을 느낀다(김승국, 1972).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애정의 대상이 자녀에게서 배우자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Kathleen, 1981).

여성의 중년기는 인생의 전환기로서 정상적인 발달과 정상 위기이며 가정에서의 자녀의 독립에 따른 역할의 변화, 인간관계의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사회, 심리적 과도기이다. 또한 이전에 형성하였던 자신과 생에 대해 돌아보고 자기의 역할에 회의론 갖기도 하며(이기숙, 1982),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면서 직업적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재평가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조망에 변화를 갖기도 한다(Levinson, 1978).

중년기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는 시기이면서도,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자기역할 회의감, 공허감, 위기감, 갈등, 부정적 자아개념 등을 경험하는 위기의 시기이다(염순교, 1996). 중년여성은 생리적, 심리·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질병에 취약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환되는 질병들의 특징은 비가역적이어서, 남은 여생동안 계속되는 고통과 곤란을 초래하면서도 가족과 혹은 자신을 위해 일상생활을 지속해야 하므로, 중년여성의 건강은 그들 자신의 질적 삶을 위해 그 어느 것 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염순교, 1996).

이렇게 중년기는 부정적인면과 긍정적인면이 모두 공존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형태의 부정적인면을 극복, 해결하고 긍정적인 면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중년여성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중년여성에 대하여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지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것은 중년여성에게 잠재해있는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을 사회에 환원 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갱년기 증상

갱년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종종 어떤 증상군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며(대한산부인과학회, 1991) 이러한 증상을 갱년기 증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갱년기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분비계의 변화

갱년기의 전형적인 증상중의 하나는 열감이다. 열감이 저녁에 나타나면 도한이라고 불리어진다. 열감 또는 혈관운동에 의한 열감은 뜨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통 얼굴에서 시작해서 목과 가슴으로 번져간다.

뜨거운 느낌과 피부 온도의 상승, 인체 내부온도의 저하, 그리고 때로는 오시시함과 몸떨림이 나타난다. 때로는 이상열감과 발한이 심하여 잠을 이룰 수 없고 발한 후 오한을 느끼며(Anne G, 1975), 위나 위상복 등에 열감, 허리, 발, 어깨 등 특정부위가 시렵다. 또한 불면증은 폐경후 여성의 46%가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성적이 되면 피로, 자극, 우울, 두통, 긴장감이 동반된다(Novak, 1975).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는 에스트로젠 감소설, FSH의 과잉 분비로 오는 혈관계의 불안정설, 혹은 시상하부의 불안정설이 있으나, 대체로 혈관운동을 지배하는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으로 초래 된다고 본다(전영자, 1985).

2) 비노생식기의 위축성 변화

여성 생식호르몬은 주로 비노생식기계에 해당되므로 폐경기 이후 조직적 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도

역시 비뇨생식기계이다. 폐경기 후의 변화를 보면 다음 순, 소음순의 위축현상을 보이며, 외음부위에도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세포층의 두께가 감소되고 피하지방 조직과 음모가 점차 사라진다. 질벽의 두께가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성교시 자극을 받아 성교통을 일으킨다. 외상을 잘 받게되며, 질내 글리코겐의 감소를 초래하여 세균 감염이 잘 일어나고 동시에 세균성 방광염, 요도염을 일으킨다(이경혜 외 9인, 1998). 자궁내막이 위축되며, 상피세포와 선(gland)이 얇아지고, 납작해지며, 그리고 증식하지 않는다. 인체 내부에서 생산되는 에스트로젠은 프로게스트론이 없더라도 위축적인 자궁내막선들이 증식하고 세포들이 비대해지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추후에 선종(adenomas; 양성의 상피성 종양)이나 선암(adenocarcinomas; 선조직에서 생기는 암)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난관이 짧아지고, 표면 세포층들이 얇아지며, 섬모(cilia)가 점차적으로 사라진다(유정민, 1996). 골반내 근육조직 및 자궁을 지지해주는 인대조직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자궁, 질의 탈수현상이 나타난다. 폐경기 후에 에스트로젠 호르몬이 감소하므로써 방광점막층과 요도주위 혈관조직에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위축성 방광염이 잘 생기고, 방광내 요도를 지지하는 인대조직 또한 약화되므로 요실금증이 흔히 발생한다(이경혜 외 9인, 1998).

3) 정서적 증상

갱년기 증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서, 심리적 증상은 신체적 증상에 따른 성적 매력과 생식 능력의 상실 개념이 자아 개념(self-concept)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이에 따른 반응으로 초래된다(Novak, 1975). 때때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나 인정도에 대하여 침울함을 갖게 되고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자신의 위치를 되찾고, 더욱 보람있게 보내야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경우 초조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Steiner, 1973). 신체적 능력의 저하가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는 내적 좌절감을 야기 시켜 이에 대한 심리적 보상 작용과 퇴행이 일어나 우울이 증가되어 여러 가지 심리적 욕구와 반응들이 나타난다(이옥무, 1988). 여성의 갱년기에 대한 공포심과 열등감이 불안과 우울을 초래하며 이러한 불안이 전환 반응에 의하여 정신적,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Achte, 1979). 이러한 정서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집중력 결핍, 신경과민, 불면증, 정서불안, 무가치감 등이 있으며(김태주, 1987), 이런 변화는 생리·

생화학적 변화, 중년기 스트레스, 문화적 영향의 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영숙 외, 1998).

Greeblatt(1979)는 정서장애가 호르몬감소 결과임에 동의하고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에스트로젠 대체요법(Estrogen Replacement Therapy : ERT)을 추천했다. Schnieder(1977)도 에스트로젠 감소가 우울과 관계가 있으며 ERT가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년기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폐경기를 지내는 여성들을 괴롭히거나 당황시킨다. 또한 40-50대의 여성들은 해결해야 할 많은 변화를 갖는다. 즉 10대 자녀 출가시키기, 노부모 모시기, 이혼이나 사별, 아프거나 죽는 가족에 대한 슬픔, 또한 배우자나 자신의 중년위기가시 어려움을 갖는다. 이런 모든 스트레스는 여성에게 정서적인 것 만큼이나 똑같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져다 준다(이영숙 외 10인, 1998). 젊음에 가치를 둔 서양문화에서는 노인은 지위없는 자리로 밀려난다. 여성 자신의 주체성을 아기양육과 가족돌봄 또는 성적매력에 근거를 둔 여성들에게 폐경기란 반갑지 않은 증상이다. 그러나 폐경기 여성이 지위를 얻는 문화권—인도, 극동, 남태평양에서는 폐경여성에서 우울증이 관찰되지 않는다. 어쨌든 서양문화권에서는 아무도 노인여성에게 특별한 지위와 기능을 주지 않으며 폐경후엔 남성의 성적 상대자가 되지 않는다. 젊음의 상실, 매력상실, 힘과 열정의 상실, 기능과 역할의 상실등 폐경을 상실의 시기로 인식하는 여성들에게 우울이 불가피하며 슬픔과 정서의 자연현상이다(이영숙 외 10인, 1998).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중년여성들은 호르몬 감소뿐 아니라 상실(지위, 자녀, 배우자, 경제력등)로 인하여 우울, 불안, 신경과민, 무가치감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나 종교생활, 사회보장제도 등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4) 골, 관절계 증상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남성, 여성 모두에게서 골 밀도의 점진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최소한의 외상 외에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골밀도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골다공증(osteoporosis)이라고 정의한다(이경혜 외 9인, 1998). 폐경후에 에스트로젠의 결핍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골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에스트로젠의 골대사에 대한 정확한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부갑상샘 호르몬에 대한 골감수성을 감소시키거나, 직접 부갑상샘 호르몬에 작용하여 골감수성을 감소시키거나, 직접 부갑상샘 호르몬에 작용하여 골

흡수를 방해한다고 한다. 즉 에스트로겐이 뼈를 형성하는 세포인 조골세포(osteoblast)를 자극하여 뼈의 흡수와 형성을 돕는다. 그런데 에스트로젠 결핍으로 뼈의 재형성이 감소되어 골량의 감소를 일으키게 되며 그 결과로 골다공증(osteoporosis)이 초래된다(최연순 외 6인, 1994). 골의 구조는 부적절한 칼슘흡수 등에 의해 골형성보다 골흡수가 더 많을 때 골밀도가 감소하고 동공이 많아지며, 약화되고 변형되기 쉽다. 칼슘은 골 자체의 견고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골의 칼슘성분을 조절하는 부갑상선, 갑상선 등의 호르몬대사(에스트로젠, 부신피질호르몬)는 골 구조에 큰 역할을 한다(이경혜 외 9인, 1998). 폐경후에는 비타민D의 장내 수준이 낮으며, 이것이 칼슘의 장애요인이 되고 대부분의 혈장내 칼슘 농도는 뼈에서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된 뼈는 밀도가 저하되어 골다공증이 초래된다. 그러나 폐경후 모든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지만 골다공증에 이환되는 경우는 전체 폐경후 여성의 25%에 불과하다. 따라서 에스트로젠의 부족에 관여하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개인의 골다공증 이환의 감수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련되는 요인들로서는 폐경시에 이미 저하되어 있는 골밀도, 폐경후의 낮은 혈중 성스테로이드, 골흡수를 촉진하는 요인들, 폐경후 저하된 골형성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젊은 여성이 난소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동일한 나이의 여성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골소실이 일어나게 된다(최연순 외 6인, 1994). 골다공증의 위험증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 난소 절제술을 받은 여성, 미산부, 여위고 신체적 활동이 적고, 칼슘섭취 부족, 카페인 섭취, 음주 등을 하는 사람에게 발생빈도가 더 높다. 폐경 또는 난소절제술 5-10년후 골다공증의 첫 증상이 나타난다. 허부흥부, 척추의 중간부위에서 급성 동통을 호소하며, 동통은 침상안정을 요할 정도로 심하고, 진통제의 투여가 요구되기도 한다(이경혜 외 9인, 1998). 골다공증의 특징적 증상을 보면 X선 촬영, 골밀도 검사에서 칼슘제거 현상이 나타나며, 키가 작아지며 쿠배증(kyphosis), 심한 관절통이 있고, 골절이 여기 저기 생기며 허약해진다. 그의 골관절계의 증상으로는 요통이 있고 어깨, 팔꿈치, 손 관절 등의 통증등이 있다. 관절통은 폐경후에 인대의 이완과 근력의 감퇴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이 나이에 흔히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결과인지, 호르몬 부족 때문인지는 구분이 어렵다(최연순 외 6인, 1994).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시와 농촌에서의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 호소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9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중년여성 중 ①40-59세 사이의 여성, ②설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③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자로 각종 모임이나 종교단체 등을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고 또한 강원도의 T대학 간호과 학생들의 어머니들에게 배부한 후 밀봉하여 회수하였다. 배부된 총 200부의 설문지중 150부가 회수되었고 그중 불완전한 설문 응답지를 제외한 12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13문항으로 구성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 4문항, 갱년기증상 호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25개 문항이다.

갱년기증상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3개영역(정신 신체적 증상 5문항, 신체적 증상 12문항, 심리적 증상 8문항)의 25개 문항이다.

도구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Neugarten(1963)이 개발한 갱년기 증상 3영역의 20문항을 기본적인 틀로 삼았다.

여기에 선행연구(지성애, 1983; 김희은, 1992; 차영남, 1995)를 수정 보완하고, 설문대상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기본틀을 수정하였다.

갱년기증상의 호소 정도는 「전혀없다」는 1점, 「경하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심하다」는 4점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하였다. 전체 25개 문항에 대한 점수는 최고 100점에서 최저 25점까지 분포하게 되고 점수가 높을 수록 갱년기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갱년기증상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치인 Cronbach's α 값이 0.94로 나타나 측정문항에 대해 설문 대상자들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치,

t-test, ANOVA,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다.

- 1) 대상자의 갱년기 증상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2) 거주지에 따른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비교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갱년기 증상과의 차이는 t-test, ANOVA,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이 40세에서 59세까지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45세 이하가 70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45세 이하의 중년여성은 대부분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며 갱년기증상 호소정도가 낮다. 그러므로 전체 중년여성으로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 변 수	구 분	실 수	백분율
거 주 지	도시	70	54.3
	농촌	59	45.7
연 령	45세이하	70	54.3
	46-50세	29	22.5
	51-55세	20	15.5
	56-59세	10	7.8
결혼상태	미혼	1	.8
	기혼	116	89.9
	사별	7	5.4
	이혼	3	2.3
	별거	1	.8
	결측	1	.8
종 교	불 교	38	29.5
	기독교	25	19.4
	천주교	29	22.5
	무 교	37	28.7
직 업	무 직	72	55.8
	정규직업	46	35.7
	파트타임	11	8.5
경제상태	매우 힘들다	17	13.2
	힘들다	39	30.2
	보통이다	66	51.2
	여유롭다	7	5.4

<표 1> 계속

제 변 수	구 분	실 수	백분율
학 령	무 학	7	5.4
	국 졸	33	25.6
	중 졸	24	18.6
	고 졸	36	27.9
	대졸이상	29	22.5
초경연령	12-13	14	10.9
	14-15	46	35.7
	16-17	41	31.8
	18-20	26	20.2
	미표기	2	1.6
독립자녀수	0명	90	69.8
	1명	20	15.5
	2명	10	7.8
	3명 이상	9	7.0
미독립 자녀수	0명	8	6.2
	1명	23	17.8
	2명	54	41.9
	3명	27	20.9
	4명이상	17	13.3
취미활동	한다	41	31.8
	안한다	88	68.2
사회 봉사활동	한다	47	36.4
	안한다	82	63.6
월경상태	규칙적	80	62.0
	불규칙적	16	12.4
	없다	32	24.8
	미표기	1	.8
배우자 만족도	매우만족	8	6.2
	만족	59	45.7
	보통	34	26.4
	불만족	21	16.3
	미표기	7	5.4

본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는 도시가 54.3%이며 농촌은 45.7%였다. 연령분포는 40-45세군이 54.3%였고 46-50세군이 22.5%, 51-55세군이 15.5%, 56-59세가 7.8%로 46세 이상이 45.8%였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0.8%였고 기혼이 90.7%로 높았고 이혼 2.3%, 별거가 0.8%였다.

종교는 불교가 29.5%, 기독교 19.4%, 천주교가 22.5%였으며, 기타가 28.7%였다. 직업은 무직이 55.8%, 정규직이 35.7%, 파트타임이 8.5%였다. 경제상태는 매우 힘든 경우가 13.2%, 힘들다는 30.2%, 보통이 51.2%, 여유롭다가 5.4%였다. 학력은 무학이 5.4%, 국졸이 25.6

%, 중졸이 18.6%, 고졸27.9%, 대졸이상인 22.5%였다. 초경 연령은 12-13세가 10.9%, 14-15세가 35.7%, 16-17세가 31.8%, 18세 이상이 21.8%로 14-17세가 67.5%로 대부분이었다.

독립한 자녀수가 없는 경우는 69.8%로 가장 많았고 1명 독립시킨 경우가 15.5%, 2명이.8%, 3명이상 독립시킨 경우가 7%였다. 미독립 자녀수가 0명인 경우는 6.2%, 1명은 17.8%, 2명은 41.9%로 가장 많았고 3명이 20.9%, 4명 이상이 13.3%로 미독립 자녀수는 2-3명이 대부분이었다. 취미활동은 하는 경우가 31.8%, 안하는 경우가 68.2%로 취미생활을 하지않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활동은 하는 경우가 36.4%, 안하는 경우가 63.6%로 취미생활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월경상태는 규칙적이 62.0%로 많았으며 불규칙적이 12.4%, 없다가 24.8%였다. 배우자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6.2%, 만족하는 경우가 45.7%, 보통이 26.4%로 78.3%가 보통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16.3%만이 불만족을 나타냈다.

2. 대상자의 갱년기증상 호소의 정도

대상자가 갱년기에 호소하는 증상을 각 문항과 정신·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의 3영역으로 살펴 보았다(표 2).

각 문항별 평균 평점은 최고 2.63에서 최저 1.55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평점 2.12점으로 권숙희(1996)의 연구에서의 1.59점과 김미향(1998)의 연구에서의 1.60점과 거의 일치하였다.

갱년기 증상의 각 문항별 점수 순위에서 정신·신체적 증상의 “팔, 다리가 쭈시고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프다”가 2.63으로 가장 높았고,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가 2.58로 높았으며, 그 다음은 심리적 증상의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때가 있다”가 2.44이고,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가 2.34로 높았다. 신체적 증상에서의 갱년기 증상 호소 정도는 대부분 낮았으며, 그중 가장 높은 점수는 “머리가 아프다”가 2.44점, “손, 발이 차다”가 2.1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정도는 정신·신체적 증상이 가장 심했으며 그 다음이 심리적 증상이고 신체적 증상이 가장 미약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지성애(1983)의 연구에서 “신경이 예민하다”, “팔, 다리가 쭈신다”, “머리가 아프다”, “심한 피로를 느낀다”는 순으로 나타난 것과 권숙희(1996)의 연구에서 “허리, 다리가 쭈시거나 무릎관절이 아프다”,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와 김미향(1998)의 연구에서 “팔, 다리가 쭈시는 신경통”, “신경이 예민하다”, “머리가 아프다” 등의 증상이 수위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다.

〈표 2〉 갱년기 증상정도 (N=129)

문항	평균 평점	표준 편차
정신, 신체적 증상		
팔, 다리가 쭈시고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프다	2.63	1.15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2.58	.93
가슴이 두근 거린다	2.01	1.04
현기증이 난다	2.09	1.03
허리가 아프다	2.62	1.01
	2.38	
신체적 증상		
머리가 아프다	2.24	1.08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1.98	1.06
진땀이 난다	1.94	1.03
· 식욕이 없다	1.80	.92
소화가 안된다	2.03	1.06
손발이 차다	2.14	1.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2.25	1.09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1.58	.82
가끔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난다	1.9	1.04
피부 감각이 이상하다	1.5	.89
가끔 유방통이 있다	1.8	1.02
변비 증세가 있다	1.87	1.05
	1.91	
심리적 증상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때가 있다	2.44	1.03
잠이 잘 안온다	1.94	1.07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2.34	1.05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	2.11	.98
무엇에 집중할 수 없다	2.11	1.01
울기를 잘한다	1.84	1.01
괜히 안절부절하고 초조할때가 있다	1.99	1.02
목에 무엇이 쑤는 것 같은 느낌이다	1.79	1.12
	2.07	
총 평 점	2.12	

〈표 3〉 갱년기 증상 점수 (N=129)

구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0- 25	3(2.3)	51.1	15.85
26- 50	66(51.2)		
51- 75	50(38.8)		
76-100	10(7.8)		

대상자의 97.8%가 25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중년기 여성의 대부분이 한가지 이상의 갱년기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권숙희(1996)의

90.3%가 한가지 이의 갱년기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연구결과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시, 농촌간의 차이

제 변 수	구 분	거주지	실수	백분율	χ^2	P			
연 령	45세이하	도시	41	32.3	2.898	.408			
		농촌	29	22.8					
	46-50세	도시	16	12.6					
		농촌	12	9.4					
	51-55세	도시	9	7.1					
		농촌	11	8.7					
	56-59세	도시	3	2.4					
		농촌	6	4.7					
	결혼상태	기 혼	도시	66			52.0	6.889	.032
			농촌	50			39.4		
사 별		도시	2	1.6					
		농촌	5	3.9					
이혼 및 별거		도시	0	0					
		농촌	4	3.1					
종 교	불 교	도시	13	10.7	13.583	.004			
		농촌	25	20.7					
	기독교	도시	17	14.0					
		농촌	8	6.6					
	천주교	도시	22	18.2					
		농촌	7	5.8					
	무 교	도시	15	12.4					
		농촌	14	11.6					
직 업	무 직	도시	36	29.3	1.698	.428			
		농촌	31	25.2					
	정규직업	도시	23	18.7					
		농촌	22	17.9					
	파트타임	도시	8	6.5					
		농촌	3	2.4					
경제상태	매우 힘들다	도시	6	4.7	3.391	.335			
		농촌	11	64.7					
	힘들다	도시	22	17.2					
		농촌	17	13.3					
	보통이다	도시	36	28.1					
		농촌	29	22.7					
	여유롭다	도시	5	3.9					
		농촌	2	1.6					
학 력	국졸 이하	도시	7	5.5	51.412	.000			
		농촌	33	25.8					
	중 졸	도시	9	7.0					
		농촌	15	11.7					
	고 졸	도시	25	19.5					
		농촌	11	8.6					
	대졸이상	도시	28	21.9					
		농촌	0	0					

〈표 4〉 계속

계 변 수	구 분	거주지	실수	백분율	χ^2	P
초경 연령	12-13	도시	11	8.7	38.868	.000
		농촌	3	2.4		
	14-15	도시	34	27.0		
		농촌	11	8.8		
	16-17	도시	22	17.4		
		농촌	19	15		
18-20	도시	1	.8			
	농촌	25	19.9			
독립 자녀수	0명	도시	60	47.2	25.234	.000
		농촌	29	22.8		
	1명-2명	도시	9	7.1		
		농촌	21	16.5		
	3명 이상	도시	0	0		
		농촌	8	6.3		
미독립 자녀수	0명	도시	1	.8	19.037	.004
		농촌	6	4.7		
	1-2명	도시	52	40.9		
		농촌	25	19.7		
	3-5명	도시	14	11.0		
		농촌	26	20.5		
6명 이상	도시	2	1.6			
	농촌	1	.8			
취미 활동	한다	도시	29	22.7	6.873	.009
		농촌	12	9.4		
	안한다	도시	40	31.3		
		농촌	47	36.7		
사회 봉사 활동	한다	도시	30	23.4	2.944	.086
		농촌	17	13.3		
	안한다	도시	39	30.5		
		농촌	42	32.8		
월경 상태	규칙적	도시	49	38.6	.848	.357
		농촌	31	24.4		
	불규칙적	도시	5	10.6		
		농촌	11	23.4		
	없다	도시	14	29.8		
		농촌	17	36.2		
배우자 만족도	매우만족	도시	7	5.7	13.944	.003
		농촌	1	.8		
	만 족	도시	40	32.8		
		농촌	19	15.6		
	보 통	도시	14	11.5		
		농촌	20	16.4		
불만족	도시	7	5.7			
	농촌	14	11.5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시, 농촌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연령($\chi^2=2.898$, $p=.408$)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결혼상태($\chi^2=$

6.889 , $p=.032$), 종교($\chi^2=13.583$, $p=.00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직업($\chi^2=1.698$, $p=.428$), 경제상태($\chi^2=3.391$, $p=2.33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x^2=51.412, p=.000$), 초경연령($x^2=38.868, p=.000$), 독립 자녀수($x^2=25.234, p=.000$), 미독립 자녀수($x^2=19.037, p=.004$), 취미활동($x^2=6.873, p=$

$.086$), 월경상태($x^2=.848, p=.35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배우자 만족도($x^2=13.944, p=.003$)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거주지(도시와 농촌)에 따른 갱년기 증상 차이

(도시 N=70, 농촌 N=59)

갱년기 증상	거주지	평균	표준편차	t	P																																																																																																																																																																																	
1. 팔, 다리가 쭈시고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프다.	도시	2.17	1.05	-5.57	.000																																																																																																																																																																																	
	농촌	3.19	1.01			2.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도시	2.35	.90	-3.23	.002	농촌	2.88	.91	3. 가슴이 두근거린다.	도시	1.78	.94	-2.83	.005	농촌	2.29	1.08	4. 현기증이 난다.	도시	1.91	.95	-2.34	.021	농촌	2.34	1.11	5. 허리가 아프다.	도시	2.27	.95	-4.68	.000	농촌	3.05	.94	6. 머리가 아프다.	도시	1.91	.97	-4.00	.000	농촌	2.64	1.07	7.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도시	1.64	.95	-4.33	.000	농촌	2.41	1.05	8. 진땀이 난다.	도시	1.65	.90	-3.77	.000	농촌	2.41	1.05	9. 식욕이 없다.	도시	1.46	.81	-4.92	.000	농촌	2.20	.89	10. 소화가 안된다.	도시	1.89	1.03	-1.88	.062	농촌	2.24	1.09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2.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	도시	2.35	.90	-3.23	.002																																																																																																																																																																																	
	농촌	2.88	.91			3. 가슴이 두근거린다.	도시	1.78	.94	-2.83	.005	농촌	2.29	1.08	4. 현기증이 난다.	도시	1.91	.95	-2.34	.021	농촌	2.34	1.11	5. 허리가 아프다.	도시	2.27	.95	-4.68	.000	농촌	3.05	.94	6. 머리가 아프다.	도시	1.91	.97	-4.00	.000	농촌	2.64	1.07	7.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도시	1.64	.95	-4.33	.000	농촌	2.41	1.05	8. 진땀이 난다.	도시	1.65	.90	-3.77	.000	농촌	2.41	1.05	9. 식욕이 없다.	도시	1.46	.81	-4.92	.000	농촌	2.20	.89	10. 소화가 안된다.	도시	1.89	1.03	-1.88	.062	농촌	2.24	1.09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3. 가슴이 두근거린다.	도시	1.78	.94	-2.83	.005																																																																																																																																																																																	
	농촌	2.29	1.08			4. 현기증이 난다.	도시	1.91	.95	-2.34	.021	농촌	2.34	1.11	5. 허리가 아프다.	도시	2.27	.95	-4.68	.000	농촌	3.05	.94	6. 머리가 아프다.	도시	1.91	.97	-4.00	.000	농촌	2.64	1.07	7.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도시	1.64	.95	-4.33	.000	농촌	2.41	1.05	8. 진땀이 난다.	도시	1.65	.90	-3.77	.000	농촌	2.41	1.05	9. 식욕이 없다.	도시	1.46	.81	-4.92	.000	농촌	2.20	.89	10. 소화가 안된다.	도시	1.89	1.03	-1.88	.062	농촌	2.24	1.09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4. 현기증이 난다.	도시	1.91	.95	-2.34	.021																																																																																																																																																																																	
	농촌	2.34	1.11			5. 허리가 아프다.	도시	2.27	.95	-4.68	.000	농촌	3.05	.94	6. 머리가 아프다.	도시	1.91	.97	-4.00	.000	농촌	2.64	1.07	7.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도시	1.64	.95	-4.33	.000	농촌	2.41	1.05	8. 진땀이 난다.	도시	1.65	.90	-3.77	.000	농촌	2.41	1.05	9. 식욕이 없다.	도시	1.46	.81	-4.92	.000	농촌	2.20	.89	10. 소화가 안된다.	도시	1.89	1.03	-1.88	.062	농촌	2.24	1.09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5. 허리가 아프다.	도시	2.27	.95	-4.68	.000																																																																																																																																																																																	
	농촌	3.05	.94			6. 머리가 아프다.	도시	1.91	.97	-4.00	.000	농촌	2.64	1.07	7.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도시	1.64	.95	-4.33	.000	농촌	2.41	1.05	8. 진땀이 난다.	도시	1.65	.90	-3.77	.000	농촌	2.41	1.05	9. 식욕이 없다.	도시	1.46	.81	-4.92	.000	농촌	2.20	.89	10. 소화가 안된다.	도시	1.89	1.03	-1.88	.062	농촌	2.24	1.09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6. 머리가 아프다.	도시	1.91	.97	-4.00	.000																																																																																																																																																																																	
	농촌	2.64	1.07			7.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도시	1.64	.95	-4.33	.000	농촌	2.41	1.05	8. 진땀이 난다.	도시	1.65	.90	-3.77	.000	농촌	2.41	1.05	9. 식욕이 없다.	도시	1.46	.81	-4.92	.000	농촌	2.20	.89	10. 소화가 안된다.	도시	1.89	1.03	-1.88	.062	농촌	2.24	1.09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7.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	도시	1.64	.95	-4.33	.000																																																																																																																																																																																	
	농촌	2.41	1.05			8. 진땀이 난다.	도시	1.65	.90	-3.77	.000	농촌	2.41	1.05	9. 식욕이 없다.	도시	1.46	.81	-4.92	.000	농촌	2.20	.89	10. 소화가 안된다.	도시	1.89	1.03	-1.88	.062	농촌	2.24	1.09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8. 진땀이 난다.	도시	1.65	.90	-3.77	.000																																																																																																																																																																																	
	농촌	2.41	1.05			9. 식욕이 없다.	도시	1.46	.81	-4.92	.000	농촌	2.20	.89	10. 소화가 안된다.	도시	1.89	1.03	-1.88	.062	농촌	2.24	1.09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9. 식욕이 없다.	도시	1.46	.81	-4.92	.000																																																																																																																																																																																	
	농촌	2.20	.89			10. 소화가 안된다.	도시	1.89	1.03	-1.88	.062	농촌	2.24	1.09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10. 소화가 안된다.	도시	1.89	1.03	-1.88	.062																																																																																																																																																																																	
	농촌	2.24	1.09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11. 손발이 차다.	도시	1.87	1.00	-3.20	.002																																																																																																																																																																																	
	농촌	2.49	1.18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12. 소변이 자주 마렵다.	도시	3.18	1.11	-.95	.344																																																																																																																																																																																	
	농촌	2.36	1.06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1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	도시	1.43	.74	-2.21	.029																																																																																																																																																																																	
	농촌	1.76	.89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14.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	도시	1.74	.99	-3.15	.002																																																																																																																																																																																	
	농촌	2.31	1.05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15. 피부감각이 이상하다.	도시	1.51	.91	-.669	.505																																																																																																																																																																																	
	농촌	1.62	.88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16. 가끔 유방통이 있다.	도시	1.75	.91	-1.19	.238																																																																																																																																																																																	
	농촌	1.97	1.11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17. 변비 증상이 있다.	도시	1.87	1.10	-.135	.893																																																																																																																																																																																	
	농촌	1.90	.99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1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	도시	2.19	.94	-3.17	.002																																																																																																																																																																																	
	농촌	2.75	1.04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19. 잠이 잘 안온다.	도시	1.62	.88	-3.89	.000																																																																																																																																																																																	
	농촌	2.33	1.16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2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	도시	2.13	1.00	-2.66	.009																																																																																																																																																																																	
	농촌	2.62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21.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	도시	1.93	.88	-2.51	.013																																																																																																																																																																																	
	농촌	2.36	1.07																																																																																																																																																																																			

〈표 5〉 계속

갱년기 증상	거주지	평균	표준편차	t	P
22. 무언에 집중할 수 없다.	도시	1.97	.95	-1.80	.074
	농촌	2.29	1.05		
23. 울기를 잘한다.	도시	1.80	.96	-.553	.581
	농촌	1.90	1.06		
24. 괜히 안절부절하고 초조할 때가 있다.	도시	1.86	.98	-1.75	.082
	농촌	2.17	1.04		
25. 목에 무엇이 꼭 낀 것 같은 느낌이다.	도시	1.49	.92	-3.37	.001
	농촌	2.14	1.24		
총 평 점	도시	1.85	.57	-4.569	.000
	농촌	2.34	.62		

갱년기 증상의 정도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 점수는 전혀 없다 1점에서 심하다 4점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갱년기 증상 점수로 문항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4〉이다.

정신, 신체적 증상은 팔, 다리가 쭈시고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프다($t = -5.57, P = .000$), 쉽게 피로하고 기운이 없다($t = -3.23, p = .002$), 가슴이 두근 거린다($t = -2.83, p = .005$), 현기증이 난다($t = -2.34, p = .021$), 허리가 아프다($t = -4.68, p = .000$)로 5개 문항 모두 도시와 농촌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증상은 머리가 아프다($t = 4.00, p = .000$), 열이 가슴에서 얼굴위로 치밀어 오른다($t = -4.33, p = .000$), 진땀이 난다($t = -3.77, p = .000$), 식욕이 없다($t = 4.92, p = .000$), 손발이 차다($t = -3.20, p = .002$), 소변이 자주 마렵다($t = -.95, p = .33$), 부부관계시 통증이 있다($t = -2.21, p = .029$), 가끔 귀에서 뽕뽕 소리가 난다($t = -3.15, p = .002$), 가끔 유방통이 있다($t = -2.21, p = .029$) 등이 도시와 농촌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심리적 증상에서는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t = .17, p = .002$), 잠이 잘 안온다($t = -3.89, p = .000$),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우울하다($t = -2.66, p = .009$),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 하다($t = -2.51, p = .013$)가 도시와 농촌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갱년기 증상 척도의 25개 문항 중에서 20개의 문항이 도시와 농촌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의 중년여성이 겪는 갱년기 증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정도의 평균은 도시가 1.857점이고 농촌은 2.340($t = -4.569, p = .0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에서의 갱년기증상 정도의 차이의 원인을 알아보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함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리하여 갱년기 증상을 더욱 감소 시킴으로서 여성의 중년기를 보다 보람되고 인생에 있어서의 황금기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갱년기 호소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 연령, 결혼상태, 종교, 직업, 경제상태, 학력, 초경연령, 독립 자녀수, 미독립 자녀수,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월경상태, 배우자 만족도 등 일반적 특성과 갱년기 호소증상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 검증하였다(표 6 참조).

갱년기 증상호소는 거주지, 결혼상태, 경제상태, 학력, 독립자녀수, 월경상태, 배우자 만족도와 관계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거주지에 따른 증상을 비교해 볼 때 도시가 1.857, 농촌이 2.340으로 농촌의 중년여성이 더 심하게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4.564, P = .000$). 연령별로 보면 45세 이하는 2.008로 가장 낮게 갱년기 증상을 호소했고, 46세~55세까지 조금 높았으며 56세 이후에 가장 높게 호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권숙희(1996), 등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갱년기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40대보다 50대에 갱년기 증상을 더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F = 4.809, P = .010$)는 기혼(2.026점)인보다 사별이나 이혼 및 별거상태(2.760점)가 심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권숙희(1996)의 연구에서는 기혼보다 사별한 경우 갱년기 증상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종교에서는 불교가 갱년기 증상 평균점수가 높았고, 기독교, 무교 순이었으며 천주교 신자가 가장 낮았고 통계

<표 6> 일반적 특성과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	%	갱년기 증상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거 주 지	도시	70	54.3	1.857	.577	-4.569	.000
	농촌	59	45.7	2.340	.622		
연 령	45세 이하	70	54.3	2.008	.623	1.836	.144
	46-50세	29	22.5	2.111	.564		
	51-55세	20	15.5	2.124	.732		
	56-59세	10	7.8	2.524	.690		
결혼상태	기 혼	116	89.9	2.026	.616	4.809	.010
	사 별	7	5.4	2.535	.665		
	이혼 및 별거	4	3.1	2.760	.465		
종 교	불 교	38	29.5	2.248	.658	1.983	.120
	기독교	25	14.4	2.086	.580		
	천주교	29	22.5	1.893	.587		
	무 교	37	28.7	2.066	.636		
직 업	무 직	72	55.8	2.119	.666	.876	.419
	정규 직업	46	35.7	2.027	.608		
	파트타임	11	8.5	1.862	.575		
경제 상태	매우 힘들다	17	13.2	2.440	.738	3.125	.028
	힘들다	39	30.2	2.127	.642		
	보통이다	66	51.2	1.992	.597		
	어유롭다	7	5.4	1.724	.592		
학 령	무 학	7	5.4	2.853	.553	7.359	.000
	국 졸	33	25.6	2.260	.603		
	중 졸	24	18.6	2.146	.644		
	고 졸	36	27.9	1.986	.591		
	대졸 이상	28	21.9	1.688	.488		
초경 연령	12-13세	14	10.9	1.708	.535	2.516	.061
	14-15세	46	35.7	2.021	.556		
	16-17세	41	31.8	2.156	.691		
	18-20세	26	20.2	2.241	.699		
	미표기	2	1.6				
독립 자녀수	0명	90	69.8	1.948	.578	4.841	.003
	1명	20	15.5	2.224	.713		
	2명	10	7.8	2.395	.712		
	3명 이상	9	7.0	2.625	.630		
미독립 자녀수	0명	8	6.2	2.566	.690	1.345	.257
	1명	23	17.8	1.986	.678		
	2명	54	41.9	2.061	.639		
	3명	27	20.9	2.029	.620		
	4명 이상	17	13.3	2.051	.579		
취미 활동	한다	41	31.8	1.968	.685	.048	.826
	안한다	88	68.2	2.129	.620		
사회 봉사 활동	한다	47	36.4	2.013	.564	3.802	.053
	안한다	82	63.6	2.115	.684		
월경 상태	규칙적	80	62.0	1.942	.553	5.993	.003
	불규칙적	16	12.4	2.393	.734		
	없다	32	24.8	2.293	.695		
	미표기	1	.8				

〈표 6〉 계속

일반적 특성	구 분	실수	%	갱년기 증상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배우자 만족도	매우 만족	8	6.2	1.563	.330	9.093	.000
	만 족	59	45.7	1.940	.509		
	보 통	34	26.4	2.046	.656		
	불만족	21	16.3	2.610	.699		
	미표기	7	5.4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에서 보면 무직이 갱년기 증상 평균점수가 2.119로 가장 높았고, 정규 직업은 2.027, 파트타임은 1.862로 가장 낮게 호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제상태를 보면 매우 힘들다의 갱년기 증상 평균점수는 2.440이며 여유롭다는 1.724로 경제상태($F=3.125$, $P=.028$)가 여유로울수록 갱년기 증상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Morse (1980)의 연구결과에서 사회, 경제적 수준과 갱년기 증상과 관계가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학력을 보면 학력($F=7.359$, $P=.000$)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김미향 (1998), 권숙희(1996) 등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상반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학력이 낮은 여성이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차영남, 1995 : 박남준, 1988 : 이옥무, 1989).

초경 연령에서 보면 초경 연령이 늦은 경우 갱년기 증상 평균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된 자녀수에서 보면 독립된 자녀가 많은 경우 갱년기 증상 평균점수 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연령과 관련된 것으로 사려된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독립자녀수가 많고, 또한 갱년기 증상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독립 자녀수, 취미활동, 사회 봉사활동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경상태를 보면 규칙적인 경우는 갱년기 증상 평균점수가 낮았고,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없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993$, $P=.003$).

배우자 만족도를 보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갱년기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093$, $P=.000$).

이는 서연옥(1996)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거주지(도시와 농촌)와의 차이를 밝히고, 갱년기 증상의 관계되는 제 변수를 밝힘으로써 중년기 여성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지방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여성 129명 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갱년기 증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갱년기 증상 측정 도구는 Neugarten(1963)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갱년기 증상을 정신·신체적, 신체적, 심리적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하며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갱년기 증상, 거주지와와의 차이 및 관계를 ANOVA, T-test,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 전체의 갱년기 증상 평균 평점은 2.12점 이었으며 항목별로는 “팔, 다리가 쉬시고 무릎 등의 관절이 아프다”(2.63),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2.58), “이유없이 신경질이 날 때가 있다”(2.44) 순이었다. 각 영역별로 구분한 갱년기 증상 중에서는 정신·신체적 증상의 평균 평점이 2.38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갱년기 증상 점수 분포를 보면 대상자의 97.8%가 한가지 이상의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평균 점수는 51.1이었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보면 결혼상태($\chi^2 = 6.889$, $p=.032$), 종교($\chi^2 = 13.583$, $p=.004$), 학력($\chi^2 = 51.412$, $p=.000$), 초경

참 고 문 헌

- 연령($x^2=38.868, p=.000$), 독립 자녀수($x^2=25.234, p=.000$), 미독립 자녀수($x^2=19.037, p=.004$), 취미 활동($x^2=6.873, p=.009$), 배우자 만족도($x^2=13.944, p=.003$)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지(도시와 농촌)에 따른 갱년기 증상 차이를 보면 갱년기 증상 평균 평점이 도시는 1.85점이고 농촌은 2.34점으로 농촌의 중년여성이 도시에 비해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569, P=.000$).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거주지, 결혼상태, 경제상태, 학력, 독립 자녀수, 월경상태, 배우자 만족도 등이었다. 거주지는 농촌에 사는 경우가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4.569, P=.000$), 결혼 상태면에서는 사별이나 이혼 및 별거인 경우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F=4.809, P=.010$), 경제 상태면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했다($F=3.125, P=.028$). 학력면에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했으며($F=7.359, P=.000$), 독립 자녀수가 많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했고($F=4.841, P=.003$), 월경 상태가 불규칙적이거나 없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했다($F=5.993, P=.003$). 또한 배우자 만족도가 낮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F=9.093, P=.00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이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있음이 규명되며 일반적 특성으로는 결혼상태, 종교, 학력, 초경연령, 독립 자녀수, 미독립 자녀수, 취미활동, 배우자 만족도 등이 도시와 농촌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향후 농촌에 거주하는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많은 영향 요인들을 고려하여 간호 중재에 활용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계획과 중재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거주지(도시와 농촌)에 따라 갱년기 증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간호 중재시 거주지도 사정할 것을 제안한다.
-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시와 농촌에 알맞은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모형개발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권숙희 (1996).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우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35-243.

김미향 (1998).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과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1), 38-49.

김승국 (1972). 간호심리학. 한국응용심리학회, 3(5), 71-74.

김윤정 (1995). 갱년기 여성을 위한 무용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주 (1987). 우리나라 일부 도시 여성의 갱년기 증상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경 (1990). 중년여성의 자아개념,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 동우전문대학 논문집, 4, 1-26.

김희은 (1992).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자기 건강관리와의 관계성 조사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난준 (1988). 중년여성의 자아개념과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순 (1995). 중년후기 여성의 건강증진 행위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변종화 (1994).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56.

서봉연 역 (1989). Crain, W.C. 저. 발달의 이론. 중앙적성출판사.

서연옥 (1994a).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건강증진 생활 방식 비교 연구. 간호학 탐구, 3(1), 93-115

서연옥 (1994b).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방식에 관한 구조 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연옥 (1996).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방식, 강인성, 성역할 특성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 119-130.

유민경 (1987). 중년여성의 발달 현상에 대한 태도와 갱년기 증상 호소,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관계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정민 (1996). 중년기 여성에 있어서 운동이 폐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진 (1985).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 행위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라 (1994). 폐경에 대한 적응과정. 대한간호학회지.

- 24(4), 623-634.
- 이경혜 (1992). 폐경 경험 연구 한국여성학회. 제8차 춘계학술대회보고서, 94-125.
- 이경혜 외 9인 (1998). 여성건강 간호학. 서울: 현문사.
- 이길홍 (1978). 폐경의 정신의학적 특성분석.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1(12), 958.
- 이영숙 외 10인 (1998). 모성 간호학 II. 서울: 현문사.
- 이옥무 (1998). 연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호소 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5.
- 이원희 (1992). 한국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갈등과 대응양상. 성인간호학회지, 4(2), 136-146.
- 염순교 (1996). 중년여성의 건강증진에 관한 인지요인과 행위와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 전영자 (1985). 갱년기 장애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제24권 제2호.
- 정은순 (1997). 중년여성의 우울증과 폐경증후군과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2), 230-240.
- 조미영외 (1981). 고위험 모성간호학. 수문사
- 조옥순 (1986). 일 지역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 호소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성에 (1984). 중년여성의 발달현상에 대한 태도와 갱년기 증상 호소와의 관계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차영남 등 5인 (1995).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건강요구에 대한 기초조사. 대한간호, 34(4), 70-82.
- 최명성 (1977). CMI에 의한 갱년기 여성의 신체 및 정신건강 평가. 간호학회지, Vol.7, 1.
- 최양자 (1989). 중년여성의 자아개념, 건강지각,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 연구. 적십자 간호전문대 논문집, 11, 51-72.
- 최연순외 6인 (1994). 모성 간호학, 수문사.
- Achte, K. (1979). Menopause from the psychiatrist's point of view. Acta. Obstet. Gene.
- Avis, N. E., & McKinlay, S. M. (1990). Health-care utilization among mid-aged women. Annals New York Academy of Science, 228-238.
- Beacham, D. W., & Beacham, W. D. (1982). Synopsis of Gynecology. (10th Ed.). Saint Louise: The Mosby Comp.
- Bee, H. L., & Mitchell S. K. (1980). The Developing Person : A Life-Span Approach. Harper & Row.
- Craig, G. J. (1980). Human Development. (2rd Ed.). Englewood Clifts, New Jersry: Prentice-Hall, Inc.
- Dewhurst, J. (1983). Integreted Obstetrics and Gynecology for Postgraduates. (3rd ed.).
- Duffy, M. J. (1988). Determinents of health promotion in midlife women. NR, 37(6), 358-362.
- Duvall, E. M. (1977). Marr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New York: Macmillian publishing Co.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W.W, Noton Co.
- Frankle,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Y.: Washington square press.
- Greenblatt, R., et al. (1979). Update on the male and female climactrric. J Am Geriatr Soc, 27, 481.
- Havighurst, R.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 Janet, M. Barber, et al. (1973). Infant & Child care. The Mosby.Co.
- Jung, C. G. (1993). Morden man in search of soul.
- Kathleen, I., & Mac Pherson. (1981). Menopase as Disease : The Social Construction of a Metaphor. ANS, 3(2).
- Larocco, S. A., & Polit, D. F. (1980). Women's Knowledge about the Menopause. Nursing Research, 29(1), 12.
- Neugarten, B. L., Wood V., Karines, R. J., Loomis (1963). Women's attitudes toward the menopause. Vita Humans, 6, 140-151.
- Levinson, D. (1978). The season of man life. N.Y.: Knope.
- Novak, E. R. (1975). Textbook of Gynecology,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 Steiner, B. W. (1973). The Crisis of Middle Age.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09(3), 1017-1027.
- Schneider, M. et al. (1997) The effect of exogenous estrogens on depression in menopausal women. Med. J. Aust, 2, 162.
- Stevenson, J. (1977). Crisis and Consolation for the middlescent women. ANS, 3(2), 87-94.

Uphold, C. R. & Susman, E. (1981). Self-reported climacteric symptoms. Nursing Research, 30 (2), 84-88.

- Abstract -

Key concept : Midlife women, Menopausal symptom, Urban area, Rural area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Menopausal Symptoms of Midlife Women between Urban Area and Rural Area

Baek, Sun Sook**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of menopausal symptoms of midlife women between urban area and rural area. A total of 129 midlife women who have lived in Seoul, Kyeung ki and Kangwon were selected conveniently and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May to June, 1998.

The instruments were the menopausal symptoms scale developed by Neugarten, Ci Sung-Ai & Kim Hy-Eun. Data analysis was done by Chi-square test, ANOVA,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erized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for the menopausal symptoms of midlife women was 2.12. Serious menopausal symptoms which could be found in this study were "joint pain and numbness of arm and leg" (2.63), "fatigue and powerlessness"(2.58), "nervousness"(2.44).

Over 97.8% of women complained menopausal symptoms.

2.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and menopausal symptoms of midlife women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urban area and rural area($t = -4.569$, $P = .000$), marriage status($F = 4.809$, $P = .010$), education($F = 7.359$, $P = .000$), married son and daughter($F = 7.359$, $P = .000$), menstrual status($F = 5.993$, $P = .003$), and satisfaction to husband($F = 9.093$, $P = .000$).

3. In the relationship of menopausal symptoms of midlife women between two groups were s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t = -4.569$, $P = .000$).

The mean score of menopausal symptoms of rural women(2.34) were higher than those of urban women(1.85).

This study shows the possible implication for nursing intervention of midlife women's health to prevent and relieve menopausal symptoms.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Tong Hae Junior College